

익산문화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

엄선주 기자 , 2009-05-04 오전 11:15:09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개발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활동지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창작지원 등 익산시의 문화를 이끌어갈 익산문화재단이 지난 27일 시청상황실에서 발기인 총회를 가졌다.

이한수 시장과 예술계, 학계 등 발기인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기인 총회에서는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 이사선임, 사업계획서 등을 의결했으며, 전라북도에 법인설립허가 신청 후 7월경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익산문화재단의 이사에는 이사장인 이한수 시장을 비롯해, 당연직4명, 선임직10명의 이사가 선임됐다. 앞으로 이들은 재단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조율하며, 재단운영규정, 직제정원 규정 등을 제정해 재단운영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익산문화재단은 지난 2007년 문화재단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민공청회, 문화예술단체와의 간담회, 문화재단 설립 설문조사, 추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시민공감대 형성, 사전여론 수렴 등을 하며 재단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